# 계란 · 닭고기 소비감소 홍보강화로 극복해야...

◇ 정리 / 채경미(본회 자조금사업팀)

△지난 4월 19일 소시모와 연계하여 4개의 복지시설을 방문, 계란을 전달하였다.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값싼 외국 닭고기와 계란의 국내 반입이 증가되고, 양계산물의 생산과잉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내 ·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양계산업은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협회는 자조금으로 우리 양계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양계인들에게 자율적인 입추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케하여 양계산업이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되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양계산물 소비촉진홍보사업으로는 닭고기를 소비하는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각 노선에 우리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지난달 본회는 양계(육계, 채란) 질병세미나를 통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ND근절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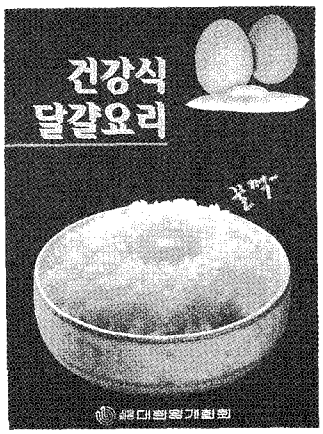
수 있는 광고 전단을 배치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시판되는 닭고기를 구입할 때 국내산 닭고기 품질인증마크의 표시 유무를 확인,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란의 우수성 및 소비촉진용 홍보물(계란을 이용하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담은 요리책자와 계란 콜레스테롤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콜레스테롤의 필요성,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법, 보관법 등을 기술한 팜프렛, '계란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자연식품입니다.'라는 바디카피의 스티커)을 제작하여, 요리책자와 팜프렛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란 판매장 등에 배치하였으며, 각종 소비자 단체 모임에 보내어 직접 소비자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스티커는 본회, 각 지부 및 분회 등에 배포하여 우편물에 부착해 발송함으로써 간접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직거래 장터 등 계란 판매 코너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계란 우수성 팜프렛과 요리책자 등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벌였다.

이렇듯 영양적으로 완벽한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계란소비가 적어 채란 양계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점을 극복, 채란업의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핵심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급식을 하는 서울시 각 초등학교, 대기업체, 시 · 도별 교육청, 소비자 단체, 서울시 각 구청 등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계산물 소비확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몇 몇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불우 이웃에 계란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해 이웃사랑을 전하기도

△금년초 서울시내 지하철에 부착되었던 닭고기 우수성 전단 광고




△계란 홍보 스티커 및 팜플렛

하였으며, 양계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계란소비촉진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전통식품으로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삼계산업의 체계적인 산업화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삼계산업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최근들어 우리 양계인들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뉴캣슬, 가금인플루엔자 등 언제 발병될지 모르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예방대책의 필요성 인식으로 닭 질병 예방대책 세미나를 실시해 양계인들에게 현장 방역 관리에 효율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내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둘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조금사업을 통한 소비홍보나 교육홍보의 결실은 단시간내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양계산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 교육 등 양계산업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선진화에 다다를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 또 다시 우리 양계산업에 타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일궈내는 양계인들의 땀방울이 값지게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때임을 강조해 본다. 양계

△지난 4월 24일 열린 '전국주부 지도자대회'에서 이날 참석한 주부들에게 계란과 홍보전단 등을 나누어 주었다.